

농식품 新 마케팅 '라이브커머스'...매출 증대 '효자'

올 거래액 10조원 추정, 최근 1년 간 농식품 총매출액 1606억원 농가단위 직접 기획·판매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지원책 확보 필요

실시간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농식품 유통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매출은 1000억원대를 기록했는데, 매출증가는 곧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책과 마케팅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년 9월~2023년 9월)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총매출은 1606억원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684억원(4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식품

(12.2%), 냉동·간편조리식품 176억원(10.9%), 음료 173억원(10.8%) 순이었고, 축산물(112억원·7%)과 농산물(75억원·4.7%)도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교보증권리서치센터가 전망한 올해 라이브커머스 거래액 추정치는 10조원이다. 지난 2020년 4000억원에서 2021년 2조8000억원→2022년 6조2000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상품을 주문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시장도 성장해가고 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소비자는 생산자인 농업인이 직접 쇼호스트로 나선 운영 방식에서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판매중인 농산물이 어떤 환경에서 재배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장 상품 노출 대비 판매량을 뜻하는 구매 전환율은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5~10%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0.3~1%)보다 높았다.

또 라이브커머스는 농산물 수출 확대의 판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멜론, 샤인머스켓, 홍삼 등이 싱가포르에 수출됐고, 올해 복숭아와 귤도 팔려나갔다.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선주문 후수출 방식으로, 바이어의 재고 리스크를 낮추고, 유통과정을 축소해 선도 유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방송을 통한 농산물 간접체험으로 신뢰도 구축에 용이해,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될 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소비자가 시정이 편한 시간에 라이브 이벤트를 예약하고, 판매가 효과적인 시간을 파악하는 등 소비자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에만 집착하지 않고 재미를 더

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특히 농가단위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기획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 확보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상품 및 방송 기획, 상품 홍보 영상 제작, 방송 장비 준비 등이 필요하며 진행 숙련도 등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를 확대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특히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농협과 지자체가 선호도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해외국가를 겨냥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적극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내 할랄인증 인도네시아서 인정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에 참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은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별도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aT 제공)



농협 광주본부, 취약농가 주거환경개선 봉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17일 임곡농협 관내를 찾아 농촌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고령 농업인과 취약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와 연계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농협 광주본부는 오는 20일까지 취약농가를 찾아 전기시설 안전점검, 누전차단기 교체작업을 비롯한 노후화 된 전등교체 작업을 펼친다.

고성신 본부장은 "겨울을 앞두고 고령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업인·지역사회와 함께 온기를 나누는 농협광주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 4월 1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농촌일손 지원 및 특기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식품부, 김장 채소 수급·가격 동향 점검

정부 할인 지원 등 확대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 농산물 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활한 유통 거래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김장 채소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김장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 차관은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품목별 동향을 상시 점검하며, 정부 할인 지원 등을 확대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은 19만3106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2.0% 떨어졌다. 무 가격도 41.1% 낮아졌지만, 대파는 17.7% 비싸고 배는 4.9% 올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90개 시장서 연말까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90개 시장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이나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김철우 보성군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진행된 '2023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에서 김철우 보성군수가 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 상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농협과의 협력 사업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주광덕 시장(남양주시), 이만근 시장(안산시), 최상기 군수(인제군), 송인현 군수(괴산군), 이완섭 시장(서산시), 심덕섭 군수(고창군), 오동창 군수(영양군), 천영기 시장(동영시)이 선정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업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농촌 현장에 계시는 농업인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본부모금회 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진농어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일대

전라남도 JeollaNamdo |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증서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서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서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회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족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